

한국 특수학급의 성립과 변용(1970 ~ 1974)

곽 정 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사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부터 1974년까지의 특수학급의 성립과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최초의 특수학급의 성립 배경과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차 문헌조사,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최초의 특수학급인 대구 칠성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은 이제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1971년이 아닌 1970년에 정식으로 학급 편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특수학급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경북 지역의 특수교육 관계자와 경북 교육위원회의 계획 하에 일반학교 내의 정신지체학생의 교육 보장이라는 특수교육적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둘째,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특수학급은 1974년 문교부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특수교육의 성격 보다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학력 구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당시 일반교육은 '국민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와 중학교 무시험제도'라는 일대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문교부(일반교육)는 학습부진학생 및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하여, 특수학급으로 하여금 임시방편의 학력 구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습부진학생과 정신지체학생의 중학교 진학을 억제하기 위해 특수학급을 이용하였다. 셋째, 학습부진학생 및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학력 구제와 중학교 진학 억제 수단으로 전략한 특수학급은 학습부진학생에게는 정신지체라는 표찰을 씌우도록 만들었다. 또한 학습부진학생의 학력 구제에 치중한 나머지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 결과 상당수의 정신지체학생은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특수학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전형을 점점 더 고착화 시켰으며, 이것은 향후 특수학급의 정체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특수학급이 일반학교 내에 있는 장애학생의 개별화된 교육적 요구를 보장하고, 통합교육 시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교육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특수학급 설치 당시의 교육 목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특수학급, 대구 칠성초등학교, 1970 ~ 1974

* 교신저자(kwak@daegu.ac.kr)

I. 서 론

1. 문제 제기

특수학급은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비장애학생으로부터 분리시켜 이행하는 교육 장소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애학생에게 특수학교 이외의 또 다른 교육의 선택지를 제공하였으며, 일반교육 내부로 특수교육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양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분리교육적 성격과 특수교육의 일반교육 내부로의 이행이라는 양면의 성격을 지닌 특수학급은 1990년대 이후 통합교육의 강조와 함께 통합을 위한 발판으로서 그 모습을 다져가기 시작하였다. 이를 반증하듯 특수학급은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제2조 정의)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새롭게 명명되기에 이르렀다(법률 제4716호).

1970년대 경상북도에 한해서 설치되었던 특수학급은 1974년을 기점으로 문교부 주도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74년 210개 이던 학급수는 2009년 4월 현재 6,924개를 기록하고 있다. 특수학급 입급 학생수는 39,380명으로, 이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전체 학생 62,986명 중 62.5%를 차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p. 36-41). 그러나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은 일반 교육 체계와 특수교육 체계와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Goodlad & Lovitt, 1993; Stainback & Stainback, 1992),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의 개혁(Lipsky & Gartner, 1989, 1997)과 일반 교육의 재구조화(Skrtic, 1995)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특수학급은 여전히 일반 학교 내의 “작은 특수학교” 내지는 “외딴 섬”으로서 위치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김성애, 1997; 김병하, 2001; 박승희, 1999). 이에 특수학급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개선방안(김동연, 1988; 여광웅, 1987; 이나미, 윤점룡, 1989; 최환호 외, 1995)들이 제시되었지만, 이들 연구들은 학생수의 적정화, 특수교육 전공 교사의 배치, 학교 행정가 및 일반교사의 이해와 협조와 같은 제도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어 정작 일반 교육 체계 내에서의 특수학급의 위상과 정체성 정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전개시키지는 못했다(김병하, 2001; 박승희, 1999).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과 관련한 연구 중 상당수는 특수학급 입급·배치를 위한 진단 평가 도구(강병주, 김성화, 최정미, 2007; 우정환, 김지원, 2005; 조인수, 김금희, 2005), 특수학급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전략이나 교사의 수행능력(김동희, 박승희, 2008; 김옥순, 박현숙, 2009; 방명애, 백운국, 2000)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반교

육과 특수학급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현재의 특수학급의 위상과 정체성을 밝히는 데 있어 특수학급 성립 초기의 역사를 규명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수학급 역사는 수치화 된 데이터와 제도적인 발전 이외에는 이렇다 할 논의를 전개하지 못했다. 이를 반증하듯, 특수학급의 성립 초기에 대한 논의는 1971년 대구 칠성국민학교(이하 대구 칠성초등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설치된 이래, 1974년 중학교 무시험제도 도입에 따라 학력 구제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확대·설치되기 시작되었다는 간략한 소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교육부, 1981, 1993; 김원경, 2003; 김병하, 2003; 박승희, 1999; 최세민, 유장순, 김주영, 2005). 그나마, 최초의 특수학급에 대한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점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썩 다행스럽다. 교육부(1993), 최세민, 유장순, 김주영(2005) 등은 대구 칠성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은 “학력 구제를 위해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특수학급이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1974년을 특수학급이 공식적으로 개설된 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동연(1988), 김원경(2003) 등은 대구 칠성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 대해 “일반 학교 내에 정신지체 특수학급이 설치되게 된 것은 특수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여기에는 “경상북도교육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느 쪽도 1차 자료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논의를 개진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은 특수학교의 시작 연대에 대한 논쟁에 비추어 본다면(김병하, 1986; 백낙준, 1970; 안병준, 1974; 안태운, 1968; 임안수, 2005), 특수교육 내부에서 조차 특수학급의 성립 초기 역사에 대한 관심이 깊지 않았다는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중학교 무시험제도 도입에 따라 학력 구제의 일환으로 특수학급이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되었다는 언급 이외에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그 의미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일반교육과 특수학급과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특수학급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만약 본격적인 특수학급의 성립이 이처럼 일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방안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라면, 김성애(1997)의 지적처럼 “한국 특수학급체제는 ‘통합’에 공헌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분리’ 기능을 조장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셈”(p. 208)인데도 말이다.

특수학급의 위상 정립과 긍정적인 정체성 획득은 특수교육 내부로부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일반 교육과의 대등한 관계 형성을 통해 성립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특수학급의 성립과 전개를 둘러싼 제 문제를 밝히고, 특수학급 성립의 역사를 새롭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급 성립 초기의 역사를 두껍게 읽어 내려가고자 한다. 일찍이 Geertz(1973)는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재해석하기 위해 “두꺼운 묘사(thick description)”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특수학급 성립 초기의 역사를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행간의 의미를 두껍게 읽어 내려가려는 시도는 특수학급이 현재 안고 있는 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시도는 현재 통합교육의 시대에 발맞추어서 새롭게 정립해 가야 할 특수학급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최초의 특수학급의 성립 배경을 밝힌다.

둘째, 중학교 무시험제도에 따른 특수학급의 확대 실시 배경을 밝힌다.

셋째, 특수학급 확대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밝힌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차 문헌 조사,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그리고 2차 문헌 조사를 병행하였다. 주요 1차 문헌은 제1회 특수학급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미나(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 편, 1973), 경북교육 특수시책③(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72), 특수학급교육 1권·2권 합본호(1974 ~ 1975), 대구 칠성초등학교 연혁지(대구 칠성초등학교, 1939 ~ 현재), 1969년 ~ 1974년에 발간된 신문 등이다. 주요 2차 문헌은 교육부(1993), 김동연(1988), 김원경(2003), 박승희(1999), 최세민, 유장순, 김주영(2005)이다. 방문한 연구 현장은 대구 칠성초등학교, 대구 동인초등학교, 대구 침산초등학교이다. 관계자 면담은 당시의 정황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당시 남양학교 교사였던 여광웅(현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당시 남양학교 초대교장이었던 김동극(전 수봉재활원장), 당시 칠성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동원(현 대구 남양학교 교장)과 이루어졌다. 김동극과의 면담은 일신상의 이유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면담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과 사실 확인이 어려운 내용은 본 연구에는 기술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여광웅과의 면담 내용만을 기술하였다.

II.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교육의 확대와 특수학급의 성립

특수학급의 역사는 근대 특수교육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임안수(2010)는 1898년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가 설립한 최초의 특수학교인 평양맹아학교는 통합교육을 준비하는 학교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밝혔다(임안수, 2010, p. 332-341). 또한 1900년 정진소학교에 평양맹아학교를 다니던 맹여학생 4명을 위해 특수학급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이미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알려져 왔다(김병하, 1986; 안병즙, 1974). 당시 맹여학생들은 오전에는 정진소학교에서 정안학생들과 일반 교과를 배웠으며, 오후에는 기숙사에서 맹인 교사로부터 점자, 침·구·안마 등을 배웠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 통합교육은 이후에도 이어져, 훗 여사는 평양맹아학교의 예비 학년에서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선교사가 운영하는 소학교에서 정안 여학생들과 함께 교육 받도록 하였다(임안수, 2010). 이와 같은 사실은 서구의 특수교육이 특수학교라는 분리교육의 형태로 출발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을 보완하는 장소로서 특수학급을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 밖에 일제 강점기 때의 특수학급으로는 1937년에 서울 동대문 공립국민학교의 병허약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학급이 있다. 이 양호학급은 당시 일본 국내에 양호학급을 설치한 학교수가 증가하였고, 국민학교령에서 신체적인 특수아 또는 정신적인 특수아동을 위한 양호학급의 편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되었다(안병즙, 1977).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더라도, 특수학교의 역사와 비교할 때 특수학급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으며, 중요한 교육 형태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수학급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어졌다. 1949년 12월 31일 제정·시행된 교육법 제145조에서는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는 신체허약자, 성격이상자, 정신박약자, 농자 및 난청자, 맹자 및 난시자, 언어자유자, 기타 불구자를 위하여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법률 제86호). 그렇지만 당시 한국 전쟁과 같은 격변의 시대를 겪으면서 특수학급의 설치에 상당 기간 본격화 되지 못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특수학급은 1969년 3월 13일에 개설한 서울 월계국민학교(1987년 광운초등학교로 교명 변경)의 약시학급이다(김동연, 1988; 임안수, 2010, p. 443-445). 이 약시학급은 1968년에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9월에 개설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으로 1969년 3월 13일 설치했다. 입학 자격은 시력이 0.04 이상 0.1인 학생이었고, 학생 수는 1학년에 3명, 3학년에 3명 모두 6명이었다. 10여평의 교실에 이동식 전기칠판, 환등기, 약시교정기, 조명확대기 등 50여점의 기구를 갖추었다. 주로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은 저시력 학급(당시에는 약시반)에서 공부하고, 음악, 미술, 체육 등은 원적학급(당시에는 원반이라고 했음)에서 공부했다. 월계국민학교는 1969년에 입학한 학생 이외에는 더 이상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았고, 처음에 1학년이었던 학생이 졸업한 1975년 2월말 폐지되었다(임안수, 2010, p. 443-445).¹⁾

이후, 본격적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되는데 중요한 시초가 된 것은 1971년 설치되었다고 알려진 대구 칠성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이다.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대한 평가는 대략 두 가지로 양분된다. 그 하나는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학력 구제의 성격을 띤 1개 특수학급이 자생적으로 운영”(교육부, 1993, p. 316; 최세민, 유장순, 김주영, 2005, p. 40)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반 학교 내에 정신지체 특수학급이 설치되게 된 것은 특수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은 자생적으로 운영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상북도교육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김동연, 1988, p. 36; 김원경, 2003, p. 288).

최초의 정신지체 특수학급에 대한 이와 같은 다소 상반되는 의견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1차 문헌 조사 및 당시 관계자와의 면담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기 이전 경상북도(당시 대구는 경상북도 소속이었음)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7년 9월 1일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은 도내 각 국민학교에 취학 중인 자 과약(80만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도내 특수 아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각 국민학교 교원이 맡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정신지체아동이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동의 80%(정신박약자 출현율 3.22%, 실수 25,700명)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창규, 1973년, p. 76). 이에 당시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원이었던 김동극을 비롯한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정신지체 특수학교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김동극에 대한 인물 연구를 한 구자희(2003)는 “‘머리가 모자란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할 만큼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던 경북 교육청 내 관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판영 당시 경북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같이 한 연구사들의 노력을 모아 전국 첫 공립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대구 남양학교의 설립을 주도”했다고 기술하고 있다(구자희, 2003, p. 14-15).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설립된 대구남양학교²⁾는 경상북도 특수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상북도 특수교육의 일반화를 위한 교육과정 작성 자료개발, 지도법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72; 허창규, 1973). 남양국민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한 김동극은 특수학교만으로는 정신지체아동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남양학교 교사였던 여광웅(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명예교수)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김동극 교장이 남양학교 오기 전에 경상북도 연구원에 있을 때, 특수교육 쪽에 관심이 많았어. 경상북도에 남양학교가 들어섰으니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하는 게 안 좋겠나, 당시 다른 시도는 아예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남양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을 선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지, 경상북도 교육위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2010. 01. 30 면담).

이와 같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의견들은 이후 ‘실험 특수 학급 설치 운영’으로 이어졌다. 1973년에 실시된 제1회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미나’에서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부교육감이었던 허창규는 “남양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실험 특수 학급 설치 운영을 위해 1971. 6.1 대구시 3교에 3학급을 편성하고 실험적으로 운영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게 한다.”(허창규 p. 78)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자생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실험 특수학급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71년 당시 특수학급 설치하기로 한 학교는 대구 칠성초등학교 외에 두 곳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광웅(2010. 01. 30 면담)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특수학급에 대한 구상은 1971년 이전에 이미 벌써 되었지만, 당시에는 이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자발적으로 할 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평소에 불우한 학생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칠성국민학교의 이용우 선생에게 얘기를 한 거지, 68년에 남양학교를 설립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칠성국민학교에서 썩을 틈을 틔운 것이지, 처음에는 이용우 선생이 비공식적으로 하다가, 그게 하나의 그루터기가 된 거지, 그러면서 2개를 더 하자 해서, 1971년에 3개가 된 거라(2010. 01. 30 면담).

이상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칠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것은 1971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대구 칠성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대구 칠성초등학교 연혁지에는 나와 있는 당시의 학급편성 및 졸업상황은 다음과 같다.³⁾

<표 1> 대구 칠성초등학교 학급편성 현황

		1970(27회)				1971(28회)				1972(29회)				1973(30회)			
특수 학반	학급 수	남	여	계	학급 수	남	여	계	학급 수	남	여	계	학급 수	남	여	계	
		1	14	16	30	1	4	5	9	1	8	10	12	2	23	20	43

대구 칠성초등학교(1939 ~ 현재) 학급편성 및 졸업상황, 연혁지(영구보존 자료), p. 45(부록 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 칠성초등학교의 학급편성에 정식으로 특수학급이 편성된 것은 1971년이 아니라, 1970년이다. 당시에는 특수학급이 아니라 특수학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수도 이제까지 알려진 것(교육부, 1981 p. 42; 교육부, 1993; 김원경, 2003; 김병하, 2003; 박승희, 2003; 최세민, 유장순, 김주영, 2005)과는 차이가 있었다. 1970년 특수학급(반) 입급 학생수는 30명이며, 1971년에 학생수는 9명이다. 그러나 같은 연혁지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연혁에는 1971년 4월 15일 특수학급 병설(전국 최초)(대구 칠성초등학교, 1939 ~ 현재, p. 13)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것은 1970년이지만, 공식화 한 것이 1971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 역사에서 1971년 특수학급이 처음 설치된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 같다. 그렇지만 학생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므로,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최초로 설치된 것은 1970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 대구 침산초등학교, 대구 동인초등학교를 방문해 특수학급 설치 년도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구 침산초등학교에는 1972년 3월 특수학급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1972년 3월에 정식으로 학급 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971년에는 계획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대구 동인초등학교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한 1980년 이전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1972년 경상북도 특수시책의 특수학급 시·군별 편성 현황(p. 31)에는 대구 칠성초등학교, 대구 침산초등학교, 대구 동인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1학급씩 설치되었다고 나와 있다. 이를 볼 때, 1972년부터는 대구 동인국민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부록 2).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특수학급의 설치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972년 발행된 경북교육특수시책(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72)은 다음과 같이 특수 교육 사전 준비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특수 교육 사전 준비

사업명	실시 기간	사업 내용
특수 교육 담당 교원 양성	1968. 8. 16 ~ 8. 26 1969. 8. 12 ~ 8.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인원 50명 ○ 수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대학 졸업자 ·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 특수교육에 열성이 있는 자 ○ 장소 한국사회사업대학
특수 교육 담당자 연수회 개최	1971. 8. 9 ~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인원 58명 ○ 연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교육 강습을 이수한 자 · 중 우수자
특수 아동 기초 조사를 위한 요원 교육	1971. 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인원 58명 ○ 연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학급 담당 예정자
특수 아동 판별 기준 작성	1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별 기준 내용 ○ 특수 아동 판별 과정 ○ 특수 아동의 지능 검사 요령 ○ 특수아의 생육사 ○ 특수아의 관찰 요령 ○ 특수아 판별의 착안점
특수 아동 실태 조사	1971. 12. 5 ~ 1972. 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 11. 29 실태 조사 요원 양성 ○ 대상 전도 국민 학교 1학년
특수 학급 운영 지침서 발간	1972.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박약아의 특성 · 정신박약아의 교육 목표 · 정신박약아의 교육 시간 배당 기준 · 정신박약아의 판별 기준
특수 학급 담당 실무 처리 연수회 개최	1972.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학급 담당교 교장 · 특수 학급 담당 교사 · 해당 시·군 학무 과장 ○ 연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학급 개설에 따른 실무 요령 · 특수 학급을 위한 환경 조성 · 특수 학급 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1972). 경북교육 특수시책③ 정신박약아를 위한 특수교육, 경북: 경상북도교육연구원, p. 13-14.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1년 1월 29일에는 “향후 특수 학급 담당 예정자를 대상으로 특수 아동 기초 조사를 위한 교육 실시” 하고, 1972년 3월 6일에는 “특수학급운영 지침서 발간” 한다고 적혀 있다(특수시책이 발간된 것은 1972년 9월이었음). 이어 경상북도교육위원회는 이상의 사전 준비를 토대로 특수 교육 설치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72, p. 16).

1) 대상 아동

국민학교 2학년 이상 아동 중 정신박약아를 판별하여 교육 가능급 및 훈련 가능급을 대상으로 한다.

2) 특수 교육 계몽

대상자 선정 및 특수 학급 설치에 앞서 특수 교육 계몽 기간을 설치하고 학부모의 이해를 촉구한다.

3) 특수 학급의 설치

가) 시읍면의 중심지 학교에 설치

나) 학급 편제

저학년(2, 3학년) 1반

고학년(4, 5, 6학년) 1반으로 학교당 2학급

4) 편제 인원

학급당 인원은 7명 ~ 15명 정도

가) 교원 조직

1) 담당 교원은 현직자중 특수교육에 관심이 큰 우수교사로서 특수교육 강습 이수자

2) 현 교육 공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절(학급당 1명)

나) 특수 학급의 시설 및 설비

1) 특수 학급의 교실은 특별히 좋은 교실을 택한다.

밝고 통풍이 잘 되고 관리하기 좋고 급수장과 변소 등이 가까운 가급적 1층 교실을 택하고 주위에 위험 지구가 없도록 한다.

2) 교실에는 개인용품함과 입체 자료대를 설치하고 교실 바닥은 유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 대구 칠성초등학교를 기점으로 설치된 특수학급은 정인지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 분명하다. 특히,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저학년반과 고학년반을 각각 편성하도록 한 점,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현직 교원 중 특수교육 강습 이수자가 특수학급을 담당하도록 계획한 점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계획은 경상북도 내의 연차별 설치 계획으로 이어졌다.

<표 3> 연차별 설치 계획

연도 \ 적용	72	73	74	75	계
학급수	18	15	15	15	63
실시학년	저학년 (2)	저학년 (2, 3)	저, 고학년 (2, 3, 4)	저, 고학년 (2, 3, 4, 5)	

경상북도교육위원회(1972).
 경북교육 특수시책③ 정인지체아를 위한 특수교육, 경북:경상북도교육연구원, p. 16

경상북도교육위원회는 3차 4개년 계획에 의거 매년 15학급씩 증설하는 특수학급 연차별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경북교육시책 1972년 현황에 의하면, 시·군 16곳에 총 18학급이 설치되었으며, 아동수는 312명이다(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72, p. 31-32). 1973년에는 15학급이 증설되어 모두 33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었으며, 아동수는 전년 아동수 누계 532명이다(허창규, 1973, p. 73). 1973년에는 대구 칠성초등학교에는 1개 학급이 더 증설되어, 2학년반, 3학년반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1973년 9월 20일에는 문교부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가 후원하고 대한교육연합회 산하 한국 특수교육연구협회(회장 이태영) 주관으로 “제1회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 편, 1973). 한국사회사업대학(대구대학교의 전신)은 세미나 개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세미나에서는 경상북도의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운영보고와 특수학급의 전망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며, 문교부 특수교육 담당자, 전국 각지의 장학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세미나는 한국 특수학급 교육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동연, 1988; 김원경, 2003, p. 288).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정인지체학생을 위한 최초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것은 1971년이 아니라 1970년이다. 당시 입급

학생수는 총 30명이다. 둘째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자생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대구남양학교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주도 아래 특수교육 계획 아래 운용된 것으로, 이후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특수학급이 확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1차 문헌을 통해 당시의 정황을 보다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최초의 특수학급의 설치 연도가 아니라, 최초의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경북에 설치되었던 특수학급은 자생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적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성립 배경을 지닌 특수학급은 이후 1974년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련의 변화를 겪게 된다. 아래에서는 특수학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배경과 특수학급과 일반교육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중학교 무시험제도에 따른 특수학급의 변용

경상북도에만 설치된 특수학급은 1974년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김동연, 1988; 김병하, 2003; 김원경, 2003; 박승희, 2003; 최세민, 유장순, 김주영, 2005). 문교부는 이에 앞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국민학교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특수교육계획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특수한 조건 없이는 취학 할 수 없는 아동 즉 지체부자유, 맹, 농아 및 정신박약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강화하되 다음 원칙에 의한다.

첫째, 교육법에 규정된 시·도별 1개교 이상을 계획기간동안에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립 5개교 외에 11개교(대도시는 장애 종류별)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시설비 전액과 유지관리비에 있어 일반학교에 비하여 특수한 소요경비를 아울러 산정한다.

둘째, 특수아동학급을 시·군단위로 1개 학급을 신설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설학교에 부설하되 교실건축·교원봉급 등 기본 경비는 일반교육비에 포함시킨다. 특수아동학급은 주로 정신박약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숙시설을 요하지 않고 다만 경영상의 특수경비만을 추가 계상한다.

셋째, 교과서 공급, 판별에 관련된 경비 등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특수아 교육에 만전을 기한다.

넷째, 특수아동을 위한 사인의 학교설립 및 경영을 적극권장하고 종전의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비를 증가시킨다.

다섯째, 상기 제 소요경비는 일체의 교육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한다(대한민국 정부, 1971, p. 194-195).

이후 문교부는 전국 시군에 1개교씩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서울과 부산은 자체 예산으로 각 교육청마다 1개 학급씩을 신설하도록 하여, 서울에는 4학급, 부산 2학급을 설치하였다. 기타 도에는 문교부에서 1학급당 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경기도에 24학급, 강원도에 19학급, 충청북도에 12학급, 충청남도에 17학급, 전라북도에 16학급, 전라남도에 26학급, 경상북도에 29학급, 경상남도에 25학급, 제주도에 3학급을 설치하였다. 1974년 전국적으로 개설한 특수학급은 모두 177개 학급이다. 1974년 이전에 경상북도에 설치된 33개의 특수학급을 합해 1974년 현재 총 210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었다. 또한 여기에 배치할 교사양성을 위해 1974년 2월에 한국사회사업대학에서 10일간 특수 교육 강습을 실시하였다(김정권, 1974, p. 125). 1970년부터 1974년까지의 특수학급 설치 현황과 이에 따른 변화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특수학급 연도별 설치 현황(70~74)

년도	학급수(A)	증감수	학생수(B)	증감수	학급당 평균아동수(B/A)
1970 ①	1		30		30
1971 ②	1		9	▽ 21	9
1972 ③	18	△ 17	312	△ 303	17
1973 ④	33	△ 15	532	△ 220	16
1974 ⑤	210	△ 177	4418	△ 3886	21

* 상기 표는 교육부(1993)의 국민학교 특수학급 연도별 설치 현황의 양식(p. 317)을 따랐으며, 새롭게 확인된 수치를 수정하였음.⁴⁾

- ①, ② 대구 칠성초등학교(1939~현재). 연혁지(영구보존 자료), p. 45
- ③ 경상북도교육위원회(1972). 경상북도 특수학급 시·군별 편성 현황, p. 31-32.
- ④ 허창규(1973). “특수학급 현황”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 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 편(1973). 제1회 특수학급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미나, p. 73.
- ⑤ 한국정신박약아 교육연구소(1974~1975). 1974년 7월 15일 현재 우리나라 특수학급설치의 실태, 특수학급연구(1권 2권 합본호), 1(1), p. 1.

이와 같은 특수학급의 양적 확대는 이제까지 특수교육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양적 확대가 일반 교육 주도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특수학급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당시 일반교육은 1960년 후반 들어 ‘의무교육의 확대 및 중학교 무시험제도 도입’이라는 일대 변화를 겪고 있었다. 1948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6년간의 초등교육(국민학교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⁵⁾, 당초에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1953년 국민학교 취학율은 59.6%를 기록하였으며(국무총리기획조정실 편, 1971, p. 266),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초인 1967년도만 하더라도 대도시의 경우도 교실 확보를 하지 못해, 3부제 수업 및 2부제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의무교육 실시가 본격화 된 것은 1966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의무교육 실시 5개년 계획이 작성되면서 부터이다. 이것을 계기로 부족한 교실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 확보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다(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편, 1966). 취학율도 증가하여, 1953년에 59.6%이던 취학율이 1959년에는 82.7%, 1963년에는 92%, 1966년에는 94.48%, 1968년에는 96.71%로, 1970년에는 96.98%로 증가하였다. 이로서 60년대 후반기부터 의무 교육의 취학상태는 완성을 보게 되었다(국무총리기획조정실 편, 1971, p. 266-267).

이와 같은 상황은 경상북도에서 남양학교를 중심으로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이 주장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허창규(1973)는 “의무 교육의 실시에 따라 적령 아동이 전원 취학하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 정박아 장애아가 거의 전학급에 분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동은 의무 교육 실시 전에는 대다수 불취학으로 버려졌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p. 75)”고 진술한 바 있다. 특히, 당시 학급당 정원이 70, 8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1970년 교육법시행령 제86조에서는 “국민학교의 학급수는 학년당 6학급이하 학생수는 학급당 6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었다(대통령령 제5427호).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정 기준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1967년 현재 80명에서 100명에 이르는 수를 수용하고 있으며 대도시 평균 1학급당 수용 학생수는 73.4명이며 서울은 평균 79.4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정부, 1971, p. 80-81). 그렇다면, 일반학급에 포함되어 있는 정신지체아동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김동극(1972)은 학급당 정원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방치되어 있는 정신지체아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한 바 있다.

잡무가 많다, 재정이 빈약하다, 교실 사정이 좋지 않다, 등등의 이유로 심신 장애 아동을 80명이 넘는 정상아동의 집단에 섞어 넣어 무시 소외해도 좋다는 이유는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김동극, 1972, p. 44).

이런 상황에서 1969년에는 중학교 입시 시험 철폐를 골자로 하는 중학교 무시험제도⁶⁾가 실시되었다. 이 결과 중전에는 시험에서 떨어져서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던 학력부진학생 및 정신지체학생 중 일부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로서 하나의 교육문제로 이슈화되었다. 조선일보 1969년 7월 10일자에는 중학교 무시험제도 실시에 대한 학력부진학생의 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시교위는 올해 무시험 추첨 진학 후 신입생들의 실력차가 크게 벌어진 점을 중시, 학기 초부터 신입생들을 상대로 지능학력고사를 실시한 결과 IQ70미만의 저능아와 약시 등으로 구구셈과 국어책도 못 읽는 아동이 학급당 평균 7~10명씩 나오는 것을 발견, 각 국민학교에 다시 저능아의 숫자를 조사함으로써 이 같은 정상수업 부적아동수를 파악했다는 것이다(기자명 미상, 저능아 등이 5%, 조선일보 1969년 7월 10일자, 8면).

주목할 점은 이에 대한 문교부의 대응이다. 문교부는 1973년 10월 29일 정신박약아 및 학습지진아 중학교 진학 억제에 따른 지도방안의 일환으로 정신박약아(교육 가능급)과 학습지진아를 대상으로 국민학교에 특수학급을 병설할 것을 권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교부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유로 국민학교 정신박약아와 학습능력이 달리는 부(지)진아에 대해 74학년도부터 중학교 진학을 억제하기로 결정, 판정결과를 오는 9월 30일까지 보고하라고 2일 각시도교위에 지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문교부가 발표한 「학습지진아(학급결손이 극심한) 및 정신박약아 중학교진학 억제방안」은 중학교교육의 계속이 불가능한 우둔아(IQ 50~70, 보호 수용급)와 치우(IQ 25~50, 훈련 가능급) 등의 정신박약아는 물론 학교교육의 계속이 불가능한 우둔아(IQ 50~70, 교육 가능급)와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을 못하는 지진아를 두 차례에 걸쳐 가려내어 출신학교장(또는 구청장) 책임아래 학부모를 설득시켜 진학을 포기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기자명 미상, 지진아 중학진학 억제, 조선일보 1973년 8월 3일자 7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4년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특수학급은 학습부진학생의 학력 구제 및 학습부진학생, 정신지체학생의 중학 진학 억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특수학급은 일반교육의 질서와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일반 교육의 문제를 해소하는 창구가 되어 버렸다. 이와 같

은 특수학급의 변용은 당초 1970년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이래 일반교육 내부에 특수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진행 되어 온 경상북도의 특수학급 설치와는 그 성격이 오히려 상반되는 것이었다. 물론, 1970년부터 1974년 사이에 경상북도에 설치된 특수학급 역시 과밀학급에 따른 일반학급 학생의 학력구제의 성격을 일정 정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설립 초기에는 정신지체학생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특수학급이 일반교육의 환경 변화에 따라 애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일반교육의 문제를 해소하고 정화하는 곳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니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거대한 교육 조직인 일반 교육에 의해 일반교육 내에 특수교육을 확장시키려는 의도와 노력이 잠식되어 버린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특수학급은 “일반학급에 부적절한 학생이 속한 곳”(박승희, 1999, p. 51)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되었다.

IV. 특수학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확대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특수학급의 성격이 변화함에 따라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는 정신지체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특수학급에는 상당한 혼선이야기되었다. 여광웅(1974)은 학습부진학생 및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중학교 진학 억제 실시에 따른 특수학급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정박아 및 학습지진아의 중학교진학억제 정책에 따른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서 정박아와 학습지진아 및 학력부진아의 혼합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수학급 성격이 분명하지 못한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 때문에 생활중심의 정박지도와 학력부진의 지진아, 부진아 지도라는 특수학급운영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별입급에도 상당한 혼동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수학급의 성격을 동질적인 대상으로 일원화하지 않으면 안된다.”(여광웅, 1974, p. 2).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당시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은 가능한 생활연령과 성취수준에 있어서 ‘동질군’(homogenous group)으로 구성해야 학습의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능력에 맞는 개별지도가 가능하다고 여겼다(김정권, 1973, 1975a). 이러한 생각은 애초에 특수교육의 확대 및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의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지만,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

미소지자가 전일제 특수학급을 운영해야 하는 당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당시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특수학급 대상자가 아닌 학습부진학생이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학급 판별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 5> 특수학급 판별 절차

절차	예비선별 →	2차선별 →	3차선별 →	최종판별
목표	학력 및 생활능력 최하위자(10%) 선정	집단지능검사 실시 (IQ 70 이하 선정)	개인용검사 실시, 면접, 부모상담, 전문의의 검진	입급자 확정
방법	누가 학력과 행동발달상태 파악 행동, 성격, 신체적 등 종합적인 관찰 평가	예비선별 해당자를 학년단위로 집단지능 검사 및 표준화학력 검사 실시	개인용 검사에 의한 분석, 전문의의 종합 검진, 외형적 특징 발견, 병력·생육력에 의한 원인파악	종합판별위원회의 협의, 부모의 입급 희망여부 화가인 적정한 교육조치
자료	생활기록부, 전담임과 의 상담자료, 개인행동 관찰, 학력검사자료	집단용 표준화지능 검사, 학력검사자료	의사진단자료, 개인용 검사자료, 면접 및 상담자료	판별카드

여광웅(1975). 특수학급아동의 판별과 입급(II), 특수학급교육, 2(1), p. 4.

이상의 절차는 담당교사 한 사람이 임의로 판단하지 않도록 최소한 학교단위로 구성된 종합판별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학습부진아 대책 마련에 급급한 일반교육의 상황 논리에 밀려, 학습부진아들이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특수학급 담당 교사에게 가중한 부담을 안겨 주었던 것 같다. 조규혁(1975)은 특수학급을 담당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60시간의 강습이수 고작 이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빈손으로 또 천진한 어린 이들을 속여야하는 내 마음은 마냥 무겁기만 했다. 만우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만 했다. 교육청 판별위원회에서 판별한 아동들의 대부분은 정신박약아가 아니라 학습부진아였음에 더욱 마음 무겁기만 했다. “그까짓 25명쯤이야” 하는 동료직원들이며 장학사,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말씀에는 더 더욱 아연실색이었다. 머리만 집어넣으면 천재나 정상아가 되어 나오게 하는 컴퓨터가 있으면 좋으련만 내겐 그런 기술은 없는 것이다. 정박 보다는 부진아를 중심한 6개

월 동안의 고충은 형언할 수 없다. …(중략)… 나는 늘 내게 묻고 또 물었다, “너의 본분은…?” 학습부진아에게 정박의 굴레를 씌워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힌 내 마음은 쓰리고 아프다. …(중략)… 연산(演算)과 독해(讀解)를 조금 향상시켰다는 명목으로 15명 아동을 환급조치 시켰으며 그 업적(?)으로 교장 선생님께 극구 칭찬을 받기 했지만 정말 가소로운 일이었다(조규혁, 1975, p. 30).

1974년 교육법시행령 제176조에서는 특수학급 정원을 30명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대통령령 제7220호). 이러한 과다 인원 책정은 학습부진학생 및 정신지체학생의 중학교 진학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되었다는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특수학급 교사 대부분은 특수교육교사 미자격증 소지자로 60시간 연수를 받고, 배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5명의 특수학급 입급 학생을 혼자서 교육한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 특수학급의 목적이 학습부진학생의 학력 구제에 있었으므로, 특수학급 교사는 정신지체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다는 부담과 학습부진아에게 정신지체라는 ‘표찰’을 붙인 것에 대한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정신지체학생들의 교육은 상당 부분 소홀이 다뤄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정신지체학생의 진학 문제로 이어졌다. 김정권(1975b)은 정신지체학생의 진학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특수학급 졸업생을 수용할 중학교 특수학급도 없으며, 이들을 받아 드릴 사회적 배경도 되어있지 않으며 국민의 인식정도도 상당히 낮아서 이들을 수용할 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 한다면 우선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세워서 이들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중략)… 한국의 경우 현재 208개 특수학급이 있는 외에 1976년에 시도군에 1개 학급씩 더 세워져서 400여개 특수학급이 있게 되는 셈이지만 중학교에는 1학급도 세워져 있지 않아서 국민학교 특수학급의 졸업생에 대한 대책은 그것이 진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연 무대책한 상태이고 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던지 일반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국민학교의 특수학급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남겨 주게 될 것이다(김정권, 1975b, p. 85).

1984년에야 비로소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실험·운영되었기 때문에(교육부, 1993, p. 319), 초등학교를 졸업한 특수학급 출신 정신지체학생의 대부분은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한 채 가정으로 돌아갔다. 이와 같은 정신지체학생의 진학 관련 문제는 김정권과 여광웅(1977)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들은 1975년 2월 특수학급을 졸업한 학생 1,360명(전국 85개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진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일반학급 진학한 비율은 54.3%, 가사 종사는 40%, 취업 5.5%, 기타 0.2%로 나타났다. 진학 및 취업자 대부분은 학습부진아였

고, 정신박약아의 대부분은 가사종사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학력구제 및 정인지체학생의 중학교 진학 억제를 계획한 일반 교육의 의도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특수학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점점 더 고착화 되어갔다. 윤영(1975)은 특수학급에 대한 일반학급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쉬는 시간마다 코흘리개들이 유리창을 기웃거리며 무슨 요술을 배우는가 보다 썰잠은 고학년 친구인들 그냥 지날소냐? "특수학급 놈들!" 외치고 도망갈 때마다 문제점 note에 체크되었다. 하기가 그들이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하다. 5, 6학년이 되어도 책을 못 읽고 우둔한 행동만 하니 말이다. 처음 개설당시부터 특수학급이란 호칭은 절대로 쓰지 말라고 전 직원에게 당부하고 나섰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암암리에 알려지기 마련이라, 이제 아무리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처럼 음폐 하려 해도 소용없다. 사람은 음폐된 곳에 더 호기심을 갖기 마련이라 그럴수록 더 들어나고 말았다(윤영, 1975, p. 38).

“특수학급 놈들!”이라는 말은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취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특수학급 확대 이전에도 특수학급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김동극은 “교칙을 위반했다고 꾸중 듣는 것도 특수학급 아동이요 함께 저질러놓고도 피할 줄 몰라 붙들여 벌 받는 것도 특수학급 아동이요 싸우다가 얻어맞고 우는 것도 특수학급 아동이다”(김동극, 1972, p. 46)라며 개탄 한 바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시선들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어 가면서 일종의 특수학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전형을 고착화시켜 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의 전형은 최근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김성애(1997)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통합의 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통합은 커녕 일반인들에게서 심한 ‘명칭부침’과 아울러 자신들의 학습적인 욕구마저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p. 208)고 논의한 바 있다. 김병하(2001)는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특수학급에 입급된 특수아동과 꼭 같은 부류의 ‘특수한 존재’로 취급되기 일수이다”(p. 10)고 지적하였다. 특히, 박승희(1999)는 2000년대 특수학급 정체성과 위상을 다음 12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1. 특수교육 접근 기회 확충의 응급 처방 2. 일반학교 내의 제2류의 작은 특수학교 3. 일반학급에 부적합한 학생이 속한 곳 4. “특수학급 학생”이란 표찰을 생성시킨 곳, 5. 국어 및 수학의 보충 지도실 6. 일부 일반교사의 교수 편의성 증대에 기여, 7. 특수교육 전문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초래 8. 일부 일반교사 승진의 교두보 9. 초등 특수학급 중심의 운영 10. 모든 장애학생이 아닌 특정 장애유형 및 경도장애 학생에 집중 11. 통합교육의 오용: 특수학급 및 일반교사의 교수 책무성의 시각지대 12. 특수학

급에서 일반학급으로의 통합이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의 통합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강조이다. 이 중 1~7, 그리고 9에 해당하는 내용은 1974년을 기점으로 일반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대된 특수학급의 변용이 낡은 문제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특수학급 시도기에 빚어진 문제들이 200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앞으로 특수학급이 일반학교 내에 있는 장애학생들의 개별화된 교육적 요구를 보장하고, 통합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반교육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특수학급 설치 당시의 본연의 목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1970년부터 1974년을 중심으로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최초의 특수학급의 성립 배경과 중학교 무시험제도에 따른 특수학급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지체학생을 위한 최초의 특수학급인 대구 칠성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은 이제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1971년이 아닌, 1970년에 정식으로 학급 편제에 포함되었다. 당시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 관계자들과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계획 하에 일반 학교 내의 정신지체학생의 교육 보장이라는 특수교육적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수교육적 의도는 경상북도 내 특수학급 설치의 확대와 “제1회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미나”(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 1973) 개최 등으로 발전되어 갔다.

둘째, 정신지체학생의 교육 확대를 위해 설치된 특수학급은 1974년 문교부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특수교육의 성격 보다는 학력 구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당시 일반교육은 ‘국민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와 중학교 무시험제도’라는 일대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문교부(일반교육)는 학습부진학생 및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일반교육의 질서와 통제를 위해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하여, 특수학급으로 하여금 임시방편의 학력 구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습부진학생 및 정신지체학생의 중학교 진학을 억제하기 위해 특수학급을 이용하였다.

셋째, 학습부진학생과 정신지체학생에 대한 학력 구제 및 중학교 진학 억제 수단으로 그 성격이 변용된 특수학급은 학습부진학생에게는 정신지체라는 표찰을 씌웠

다. 또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학력 구제에 치중하면서 정인지체학생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이 결과 일정 학력향상에 도달하지 못한 상당수의 학습부진학생과 정인지체학생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특수학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전형은 더 고착화 되어 갔으며, 이것은 이후 특수학급의 부정적인 정체성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최근 특수학급은 시간제 운영, 특수교육교사의 배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은 일반교육 내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 내지 못한 채 ‘특수한’ 별도의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 수준 학력 평가 실시에 따라 특수학급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진명선 기자(2008.10.13)는 일제고사에 따른 통합교육의 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일제고사를 보는 중학교에서는 평균을 ‘깎아먹는’ 장애학생을 응시인원에 넣을지 말지를 놓고 고민에 빠지는 일이 많다. 사실 장애학생들은 중간·기말고사 때마다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다. 특수교사 처서는 “그래도 중학교 때는 원래 소속된 반에서 시험을 보도록 해주지만 고교생이 되면 내신등급제 때문에 어렵도 없다”며 “통합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시험 때만큼은 자녀가 교실을 떠나는 것을 용인한다”고 말했다.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급에 모여 시험을 따로 본다. 1점으로 진로가 갈리는 상황에서 장애인식 교육만으로 비장애학생들과 장애학생의 자연스런 ‘통합’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성적이 중요해지면서 장애학생을 대하는 비장애학생들의 태도도 달라진다. 특히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장애학생들은 왕따 1순위다. 수업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내는 등 공부를 방해하기 때문이다(진명선 기자, 일제고사 부활이 통합교육 망친다, 한겨레신문 함께하는 교육 2008년 10월 13일자 3면).

이와 같은 경쟁적 교육 풍토 속에 평균을 ‘깎아먹는’ 존재, ‘공부를 방해하는 존재’, ‘왕따 1순위’로 전락한 장애학생의 모습은 중학교 무시험제도 실시와 함께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특수학급 학생의 모습과 닮아 있다. 과거에는 비장애학생의 입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배제되었다면, 이제는 비장애학생의 경쟁을 위해 배제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발한 한국의 특수학급은 일반교육의 양적 확대에 따라 일반교육의 문체를 정화하는 곳으로 변용되면서, 일반교육의 질서와 통제를 따라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일을 오늘의 교훈으로 삼아, 일반교육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가운데 통합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특수학급의 위상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1) 약시학급의 설치 배경 및 이후 약시학급 설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임안수(2010, p.443-445) 참조.
 - 2) 당시 교명은 대구 남양초등학교이다. 1968년 7월 9일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69년 6월 20일 개교하였다. 이후 대구남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1974년도부터 중등부 설치를 인가받았다.
 - 3) 대구 칠성초등학교의 이태자 교감선생님은 당시의 연혁지와 교원 이력서철 등을 확인해 주었다. 이태자 교감선생님은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 특수학급 담당 교사를 불러 이와 같은 역사를 다시 주지시키며, 자긍심을 가지고 특수학급에 종사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역사적인 기록을 복사 해 주며, 원본과 같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특수학급 설치 현황에 협조해 주신 대구 칠성초등학교 이태자 교감선생님, 대구 동인초등학교 원성연 교감선생님, 대구 침산초등학교 교무부장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4) 해당 년도의 문계통계연보(문교부)를 확인한 결과 ‘학급편제 방식별 학급수’에서는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음. 1985년 이후 문계통계연보에는 기재되어 있었음.
 - 5) 헌법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 교육법 제9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 6세가 된 익일 이후의 최초 학년 초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86호, 1949. 12. 31, 제정).
 - 6) 1968년 7월 15일 발표되어 1969년부터 시행하게 된 중학교 입학에 있어서의 학군 추첨제 채택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중학교 입학시험이 국민학교 교육을 암기위주 또는 입시 준비화시켜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신체발육을 저해” 한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의무교육 9개년 연장의 기틀을 마련” 하기 위한 시도였다(국무총리기획조정실 편, 1971, p. 269).

참고문헌

- 강병주, 김성화, 최정미 (2007). 특수학급 입학·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관련 선행 연구 고찰,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8(2), 31-53.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72). **경북교육 특수시책③ 정신박약아를 위한 특수교육**. 경북: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법 (1949). 교육법 법률 제86호.
- 교육법시행령 (1970). 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5427호.
- 교육법시행령 (1974). 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7220호.
- 교육부 (1993). **특수교육 백서**. 서울: 교육부.
- 구자희 (2003). 성준 김동극의 특수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 대학원.
- 국무총리(내각)기획조정실 편 (1971). **행정백서**. 서울: 대한민국 정부.
- 기자명 미상 (1969.7.10). 저능아 등이 5%, 조선일보, 8면.
- 기자명 미상 (1973.8.3). 지진아 중학진학 억제, 조선일보, 7면.
- 김동극 (1972). 특수학급 운영의 당면문제, **문교경북**, 36(72.9), 42-50.
- 김동연 (1988). 특수학급 교육의 발전과정과 당면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1, 33-47.
- 김동희, 박승희 (2008).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의 학교 급별 비교, **특수교육**, 7(1), 145-172.
- 김병하 (1986).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여사에 의한 한국 특수교육의 성립 사고, **특수교육학회지**, 7, 5-27.
- 김병하 (2001).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의 재구조화: 한국적 상황과 딜레마.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2(2), 1-22.
- 김병하, 김용욱, 우정환 (2002). 일반학교 특수학급교사의 교육세계-언저리에 있는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학연구**, 36(4), 77-99.
- 김성애 (1997).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긴장(Tension)-한국 특수학급체제의 새로운 과제, 전망, 그리고 방안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연구발표회(제61회), 191-220.
- 김옥순, 박현숙(2009). 초등 특수학급 교사의 학습장애아 교수수행능력에 대한 인식 조사, **특수교육학연구**, 44(1), 175-194.
- 김원경 (2003). **특수학급·학교 경영론**. 서울: 특수교육.
- 김정권 (1973). 특수학급의 아동정치(兒童定置), 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 편(1973). 제1회 특수학급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미나, 35-69.
- 김정권 (1974). 특수교육의 이념과 역사, 한국교육학회 편(1974). **한국교육문제총서 7**, 서울: 능력개발, 101-129.
- 김정권 (1975a). 특수학급의 설치의의, **특수학급교육**(1권 2권 합본호), 2(1), 2-3.
- 김정권 (1975b). 특수학급 졸업생 대책, **특수학급교육**(1권 2권 합본호), 2(11), 85.
- 김정권, 여광웅 (1977).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로대책에 관한 연구(I), **특수교육논총**, 1, 7-24.

- 대구 칠성초등학교 (1939 ~ 현재). **연혁지**(연구보존 자료). 대구: 대구 칠성초등학교.
- 대한민국헌법 (1948).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호.
- 대한민국정부 (1971).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1972 ~ 76). 제5장 국민학교 의무교육 계획. 서울: 대한민국정부.
- 문교부 (1970). **장기종합교육계획**(안). 서울: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 문교부 (1981). **특수교육백서**. 서울: 문교부.
- 박승희 (1999). 2000년대 한국 특수학급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관계 구도의 진전, **특수교육학연구**, 33(2), 35-66.
- 박승희 (2003). **한국 장애학생 통합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방명애, 백운국 (2000). 특수학급 아동의 교육적 통합을 위한 교수전략의 사용과 지원의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특수교육 연구**, 7, 89-112
- 백낙준 (1970).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810*.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안병죽 (1974). 한국특수교육 발전과정에 관한 일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국사회사업대학원.
- 안병죽 (1977). 한국 초기의 양호학급 교육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과학**, 6, 31-47.
- 안태윤 (1968).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과정에 관한 일 연구. **한국사회사업대학논문집**, 1, 75-93.
- 여광응 (1974). 특수학급 아동의 판별과 입급(I), **특수학급교육**(1권 2권 합본호), 1, 2-3.
- 여광응(1975). 특수학급아동의 판별과 입급(II), **특수학급교육**(1권 2권 합본호), 2(1), 4.
- 여광응 (1987). 특수학급 교육의 개혁 방향, **특수교육학회지**, 8, 181-194.
- 우정환, 김지원 (2005). 특수학급 교육대상자 선정에 따른 진단·평가 실태와 개선방안,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6(2), 201-228.
- 윤영 (1975). 특수학급 교사의 지도사례 “특수학급 놈들”, **특수학급교육**(1권, 2권 합본호), 2(5), 38.
- 이나미, 윤점룡 (1989). 특수학급 운영의 효율화 방안. 연구보고 RR89-7. 서울: 교육개발원.
- 임안수 (2005). 근대 한국 특수교육의 기원연대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6(3), 293-309.
- 임안수 (2010). **한국 시각장애인의 역사**. 서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편 (1966). 장기종합교육계획(안)(72 ~ 76년). 서울: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
- 조규혁 (1975). 특수학급 교사의 지도사례 “자신없는 길잡이”, **특수학급교육**(1권 2권 합본호), 2(4), p. 30.
- 조인수, 김금희(2005). 중학교 특수학급 입급 대상학생의 교육진단평가 실태조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4(3). 203-244.
- 진명선 (2008. 10. 13). 일제고사 부활이 통합교육 망친다. 한겨레신문 함께하는 교육 3면.
- 최세민, 유장순, 김주영 (2005). **특수학급 경영론**. 서울: 박학사.
- 최환호, 김상진, 이효자, 정해동 (1995). 특수학급 운영개선 방안 연구, 연구 95-R-6.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교육진흥법 (1994). 특수교육진흥법. 법률 제4716호.
- 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 편 (1973). 제1회 특수학급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미나 보고서.
- 허창규 (1973).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 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 편(1973). 제1회 특수학급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미나, 73-85.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
- Goodlad, J., & Lovitt, T. C. (1993). Recurring issues in special and general education. In JI Goodlad & TC Lovitt(Eds.), *Integrating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 (pp. 49-71). New York: Merrill Pub Co.
- Lipsky, D. K., & Gartner, A. (1989). *Beyond separate education: Quality education for all*. Baltimore, MD, England: Paul H. Brookes Pub Co.
- Lipsky, D. K., & Gartner, A. (1997). *Inclusion and School Reform: Transforming America's Classrooms*. Baltimore: Paul H. Brookes Pub Co.
- Skrtic, T. M. (1995). *Disability and democracy: Reconstructing (special) education for Postmodernit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New York.
- Stainback, S., & Stainback, W. (1992). *Curriculum considerations in inclusive classrooms: Facilitating learning for all students*. Baltimore: Brookes Pub Co.

Process of Creation and Acculturation of Special
Classes in South Korea: 1970 ~ 1974

Kwak, Jeong-Ran
Daegu University Docen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creation and acculturation of special classes from 1970 to 1974, thereby looking into the background behind the formation of the first special class and how it has changed thereafter. To establish this purpose, a primary literature research, site visits, and interviews with relevant people were conducte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unlike what has been known so far, the special class in Daegu Chilsung Elementary School, the first special class for mentally retarded students, was formally included in the school system in 1970, not in 1971. This class was not spontaneously formed for educational salvage, it was made under the planning of those concerned with special education in Gyeongbuk, with an obvious goal of special education to guarantee education for mentally retarded students within an ordinary school. Second, special classes, which first started to be established in Gyeongbuk Province, was expanded in 1974 to the whole nation by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so their goal was characterized more by educational salvage than by special education. At that time general education was going through two sweeping changes: the expansion of mandatory education and the system of middle school entrance with no exam. During this process, the Ministry increased the number of special classes so that they could play a makeshift role of educational salvage, rather than taking education for poor learners and mentally retarded students. Furthermore, the organization employed special classes to discourage mentally retarded students from advancing to junior high schools. Third, special classes labelled poor learners mentally retarded. In addition, more emphasis was placed on educational salvage of poor

learners, so education of mentally retarded students was largely neglected. As a result a large majority of the mentally retarded did not enter junior high schools. All the conditions above cemented the negative image of special classes and strongly influenced their identity in later years. For special classes to guarantee satisfaction of disabled students' individual educational needs and to play a role suitable for an era of integral education, new relationship with general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ir original goal of special education at the time when they were first established should be pursued.

Key Words

: Special Classes, Daegu Chilsung Elementary School, 1970 ~ 1974

논문 접수: 2010. 02. 04 심사 시작: 2010. 02. 10 게재 확정: 2010. 03. 18

[부록 1]

사립특성 및 졸업상황

학년	1968 (25 회)				1969 (26 회)				1970 (27 회)				1971 (28 회)				1972 (29 회)				1973 (30 회)			
	학급수	남	여	계	학급수	남	여	계	학급수	남	여	계	학급수	남	여	계	학급수	남	여	계	학급수	남	여	계
1	8	325	295	620	10	330	320	650	8	316	317	633	7	270	255	525	8	297	298	595	9	316	325	641
2	8	315	290	605	8	322	320	642	10	393	358	751	8	290	270	560	7	271	248	519	8	307	307	614
3	8	320	300	620	8	350	330	680	8	350	287	637	9	340	335	675	8	265	276	541	7	280	257	537
4	8	332	370	702	8	340	339	679	8	367	324	691	9	327	320	647	9	360	327	687	7	263	283	546
5	8	300	285	585	8	322	320	642	8	374	321	695	9	320	310	630	8	311	258	569	9	361	326	687
6	8	252	266	518	8	334	310	644	8	340	316	656	8	331	299	630	9	340	293	633	8	327	252	579
합계									1	14	16	30	1	4	5	9	1	8	10	12	2	23	20	43
합계	48	1844	1826	3650	50	1978	1939	3837	50	2140	1923	4,063	51	1882	1794	3676	50	1852	1709	3,561	50	1,877	1770	3,647
졸업생수	252	266	518	졸업생수	334	310	644	졸업생수	340	308	648	졸업생수	331	299	630	졸업생수	335	297	632	졸업생수	347	288	635	
진학생수	207	208	415	진학생수	277	245	522	진학생수	297	256	553	진학생수	299	226	505	진학생수	273	216	489	진학생수	330	236	566	
취진학생수	25	58	103	취진학생수	57	65	122	취진학생수	43	52	95	취진학생수	52	73	125	취진학생수	62	81	143	취진학생수	17	52	69	
학율			80.1	학율			87.2	학율			85.3	학율			80.2	학율			77.4	학율			89.1	
총계			1030.9	총계			1075.4	총계			1065.3	총계			12,232	총계			12,864	총계			13,499	

2010년 2월 5일
대구 칠성초등학교

[부록 2]

특수학급 시·군별 편성 현황(1972)

시군명	교명	학급수	인원수	비고
대구시	대구 칠성	1	17	
"	대구 동인	1	15	
"	대구 침산	1	40	
포항시	포항 중앙	1	15	
경주시	경주 계림	1	13	
김천시	김천 중앙	1	15	
안동시	영가	1	20	
의성군	의성	1	14	
영덕군	영덕	1	20	
영천군	영천	1	17	
경산군	경산 중앙	1	14	
청도군	청도 중앙	1	15	
성주군	성주	1	15	
칠곡군	왜관	1	15	
상주군	상산	1	15	
문경군	호서남	1	19	
예천군	예천	1	15	
영주군	영주	1	18	
계		16	279	

경상북도교육위원회(1972). 경북교육 특수시책③ 정신박약아를 위한 특수교육, 경북: 경상북도교육위원회.

